

농촌거주 결혼이민여성의 발달과 적응

최 연 실¹⁾

상명대학교

이 순 형²⁾

서울대학교

문 무 경³⁾

육아정책개발센터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거주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발달적 관점에서 이들의 결혼생활을 살펴보고, 적응 양상이나 과정, 전략 등과 관련된 논의를 시도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여성들은 개인발달적 차원에서는 청년후기나 성인전기, 가족발달적 차원에서는 주로 가족형성기나 가족확대기에 처해 있다. 둘째, 결혼이민여성들은 청년후기에 개인적 정체감 확립과 친근감 확립, 성인전기에는 부부체계 확립, 부모자녀체계 확립, 확대가족체계에서의 적응 등의 발달과제를 안고 있다. 셋째, 결혼이민여성들은 개인발달과업의 미해결, 발달과제 수행을 위한 가족체계 확립의 취약, 발달과업으로서의 결혼에 대한 동기나 인식의 차이, 문화부적응으로 인한 발달과업 수행의 미흡, 연령규범의 이탈과 배우자 간 세대차 등의 발달적 위기와 문제를 경험한다. 넷째, 결혼이민여성들의 결혼생활 적응에는 다양한 관련요인이 작용하며, 특히 사회적 지지 혹은 사회적 호위대의 지원이 적응기제로서 작용한다. 다섯째, 결혼이민여성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자신의 여건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정체감을 형성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해 가는 적응단계를 거친다.

주요어 : 농촌거주 결혼이민여성, 발달, 적응

1) 주저자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E-mail : yschoi@smu.ac.kr)

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3)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I. 서 론

한국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은 팔목한 만한 현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결혼이민의 문제는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부각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유지되던 단일민족 이데올로기, 순혈주의 전통이 무너지가고 다문화사회의 도래가 거론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

1990-2005년의 16년간 한국의 국제결혼 건수는 240,755건이었다. 2005년 총 결혼건수 316,375건 중 국제결혼이 43,121건(13.6%)이므로, 현재 결혼하는 7쌍 중의 1쌍이 국제결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결혼 중 72.3%(31,180건)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고, 나머지 27.7%(11,941건)는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이다(통계청, 인구동태 혼인·이혼편. <http://kosis.nso.go.kr> 계산). 최근으로 올수록 국내의 국제결혼 중에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부인의 출신국은 중국이 가장 많고, 다음이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의 순이다(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 2005).

국제결혼으로 인한 혼인 이주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파악된다(김영란, 2005; 김은실, 2002; 아시아이주여성포럼, 2005; 이금연, 2003; 이수자, 2004; 이혜경, 2005; 한국염, 2004).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현상은 그의 개인적 선택으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계,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와

정부, 국제결혼중개업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결혼이주는 첫째,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국가들 간의 불균등 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둘째,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송출국 사회와 자국민의 여성 송출을 장려 또는 방관하는 정부정책 및 가부장제적 문화, 셋째, 신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여성을 충원하려는 유입국 사회와 그것을 조장하는 정부정책, 넷째, 국제결혼을 성사시킴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등이 그 증가의 배경원인이 되고 있다(설동훈, 2006).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입안에 대한 관심(관계부처 합동, 2005; 교육인적자원부 외, 2006; 설동훈 외, 2005; 이순형·문무경·최연실·이숙정·정하나·우현경, 2006)과 학문적 주목도 높아져 연구가 활발히 시도되어 왔다. 현재까지의 학문적 연구를 살펴보면, 국제결혼 현상 연구(성지혜, 1996; 홍기혜, 2000),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연구(김경신, 2006; 설동훈, 2006; 이순형, 2007; 채옥희, 2006), 농촌지역 국제결혼 연구(김정태, 2005; 박재규, 2005; 양순미·정현숙, 2006; 윤형숙, 2004; 한건수, 2006), 국제결혼 가정의 결혼생활 분석(김오남, 2006a, 2006b; 이혜경, 2005; 최연실·권용혁·김태성·우실하, 2007), 국제결혼을 둘러싼 다문화현상 분석(김영란, 2005; 문경희, 2006) 등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국제결혼의 연구추세는 주로 현상을 파악하는 연구들에서 일부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들로 확대되고 있으며, 나아가 결혼 이민여성의 현실 적응을 돕기 위한 방향도 활발히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의 연

구들은 전반적으로 양적 연구가 많았으며, 실태나 문제점 파악을 주로 하는 경향이 있어왔으나, 결혼이주여성이나 국제결혼을 둘러싼 심층적인 분석이나 특정영역이나 주제들을 대상으로 심화시킨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농촌 지역거주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그들의 일상을 바탕으로 해서 발달적 관점에서 이 여성들의 결혼생활을 살펴보고, 이들의 적응 양상이나 과정, 전략 등과 관련된 논의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한 사회에서의 성원은 평생 동안 발달을 계속하고 이는 환경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을 둘러싼 제반 조건의 작용으로 이주를 시도하는 결혼이민여성들도 그들의 삶에서 성장과 발달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존재적 조건에 처해 있으며, 새로운 사회에서의 그들의 적응도 결국에는 개인적·가족적 차원의 발달단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발달과 적응을 함께 살펴보는 본 연구의 의미도 이러한 두 측면 간의 긴밀성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결혼생활 안에서의 발달적 현실과 과제의 파악, 그리고 적응을 돕기 위한 전략 모색 등은 발달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결혼이민여성의 적응을 돕는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라는 실천적 측면에서 기초적이고도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론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거주 결혼이민여성들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을 살펴보고 이를 발달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문화기술지적(ethnographic)인 방법을 채택하여 이 틀 안에서 심층면접을 전개시킨다.

문화기술적 연구는 과학적 일반화보다는 일상생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참여관찰이나 심층면접을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일상생활의 다양성과 그것이 당사자에게 갖는 의미를 그들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소수의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심도 있는 관찰과 이해를 추구한다(노영주, 1998).

이러한 방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발달과 적응에 접근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결혼이민여성의 발달과 적응에 관련되는 여러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결혼이민여성의 발달과 적응의 의미를 사회문화적 맥락과 개인체험적 맥락에서 중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셋째, 이러한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측면을 지닌 결혼이주여성의 발달과 적응을 한국사회의 문화적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이론이나 개념과 연관시켜 분석을 시도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참여자는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며, 결혼이민사업과 관련인사들(공무원, 사회복지사, 교육담당자,

국제결혼중개업체 사장, 베트남 호치민시 주재 영사 등)도 참고적으로 포함되었다. 농촌이 주여성을 택한 이유는 결혼이민여성들이 농촌에 주로 거주하게 되고 연령이 높은 농촌남성들의 초혼, 혹은 재혼 상대가 됨으로써 문화적응이나 개인·가족발달적으로 검토할 측면들이나 문제들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인

적 사항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자인 농촌거주 결혼이민여성 12명의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베트남 3명, 일본 3명, 중국(조선족 포함) 3명, 필리핀 3명 등이다. 이들의 연령은 평균 32.8세로 베트남 출신 국가의 여성들은 연령층이 낮은 편이며, 일본 출신 여성들은 비교적 높은 연령층에 속한다. 이들의 교육수준은 중졸 2명, 고졸 7명, 전문대졸 1명, 대졸 2명으로 필리핀 출신과 일본 출신 여성들의

표 1. 연구참여자의 인적 사항

사 례	출신 국가	연 령	학 력	거주 지역	본인결혼 지위	남편 연령	남편 학력	남편결혼 지위	결혼지속 년수	남편 직업	동거가족	자녀수	비고
1	베트남	19	중졸	충남	초혼	35	고졸	초혼	1년	농업	시부모, 부부	0	
2	베트남	21	고졸	경남	초혼	42	고졸	재혼	2년	농업	시부모, 부부, 자녀	1	
3	베트남	29	고졸	강원	초혼	50	고졸	재혼	5년	농업	시모, 부부, 자녀	3	자녀 1명 (전처 소생)
4	일본	36	전문 대졸	충남	초혼	42	대졸	초혼	12년	사무직	시부, 부부, 자녀	2	통일교
5	일본	43	고졸	강원	초혼	46	고졸	초혼	16년	농업	시모, 부부, 자녀	3	통일교
6	일본	40	고졸	경남	초혼	47	고졸	초혼	10년	농업	부부, 자녀	2	통일교
7	중국	27	중졸	강원	초혼	42	고졸	재혼	3년	농업	부부	0	
8	중국 (조선족)	31	고졸	충남	초혼	44	고졸	재혼	5년	서비스 직	시부모, 부부, 자녀	2	
9	중국 (조선족)	36	고졸	경남	재혼	44	고졸	재혼	4년	농업	부부, 자녀	1	
10	필리핀	31	대졸	충남	초혼	34	고졸	초혼	4년	서비스 직	부부, 자녀	2	
11	필리핀	42	고졸	강원	초혼	47	고졸	초혼	4년	농업	시모, 부부, 자녀	1	
12	필리핀	39	대졸	경남	초혼	45	고졸	재혼	5년	농업	부부, 자녀	2	

학력 수준이 높은 편이다. 거주지역은 강원, 충남, 경남지역에서 각각 4명씩이다. 본인 결혼지위는 초혼이 대부분이며, 재혼이 1명 있다. 남편의 학력은 대졸이 1명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고졸이다. 남편 결혼지위는 초혼과 재혼이 반반씩을 차지함으로써 재혼비율이 높은 편인데, 특히 중국 출신 여성들의 남편은 모두 재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지속년수는 평균 5.9년인데, 베트남, 중국, 필리핀 출신 여성들의 결혼지속년수는 5년 이하인데 비하여, 일본 출신 여성들의 결혼지속년수는 10년 이상을 넘었다. 남편의 직업은 사무직 1명, 서비스직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농업이었다. 동거가족을 통해 가족형태를 살펴보면, 확대가족이 7명이었으며, 나머지 6명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자녀수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2명, 1명인 경우가 3명, 2명인 경우가 5명, 3명인 경우가 2명이었다. 주목할 점은 일본 출신 결혼이민여성들은 모두 통일교 신자로서, 이들은 모두 통일교가 주선한 단체 국제결혼에 의해 결혼한 경우에 속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및 이민 담당 공무원 7명, 사회복지사 1명, 교육담당자 2명, 결혼중개업체 대표 3명, 베트남 호치민시 주재 한국영사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국제결혼 및 이민담당 공무원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활동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서,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각각 지역을 선정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면접하였다. 사회복지사와 교육담당자 면접은 이들을 통해 현장의 상황과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결혼중개업체 대표들

과의 면담은 현재 국내 국제결혼중개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혼중개업협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업체 사장 3명을 만나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베트남 여성들과 한국 남성들의 결혼과정을 참여관찰하는 과정에서도 필요에 따라 이들 사장들과 면접을 실시하였다. 한편 농촌거주 결혼이민여성의 주요송출국인 베트남 호치민시 주재 한국영사와의 면접은 베트남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과정에 대한 참여관찰 기간 중, 베트남 현지의 상황과 외교적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실시된 자료수집과정을 제시하면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농촌거주 결혼이민여성 심층면접

농촌거주 결혼이민여성의 심층면접은 2006년 7월 15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들 조사대상자에 대한 접근은 결혼이민자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은 연구자 3인과 보조연구원 3인이 실시했으며, 1인당 약 2시간에서 4시간씩 조용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결혼기간이 길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면접자와 여성이 1:1로 면접하였으며, 결혼기간이 짧아 한국어만으로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면접을 하거나 영어를 함께 사용하여 면접을 하였다.

결혼이민 관련인사 면접조사

결혼이민자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

원 및 실무자 면접은 2006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이루어졌다. 면접자가 해당지역 군청 및 복지관, 결혼이민자센터, 문화원 등을 방문하여 면접하였다.

결혼중개업체 대표와의 면접은 2006년 5월 28일 진행되었다. 먼저 3개 업체 대표들과 한 자리에서 현재 국내 결혼중개업체의 현황과 결혼시장의 상황 및 결혼중개업협회에 대한 소개를 들었고, 이후에 한 명씩 조용한 공간에서 면접을 실시하였다. 결혼중개업체 종사자 면접은 2006년 6월초 베트남 현지 참여관찰 중에도 필요에 따라 실시하였다. 면접에는 전체 간담으로 30분, 개인면접으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베트남 호치민시 주재 한국영사와의 면접은 2006년 6월초 호치민 영사관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호치민 영사관을 방문하여 베트남 현지의 국제결혼과 관련된 법적·정치적·외교적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국내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해야 할 방안에 대한 제언점을 청취하였다. 영사면접에는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먼저 면접분석과정에서의 기본적인 방법인 질문하기와 비교하기를 활용하였다(Strauss & Corbin, 1998). 분석시 연구자의 민감성을 증진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자료를 보는 방식과 개념적인 질문을 형성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자료를 구체적으로 대조·비교하여 차이를 추출해내도록 노력하였다.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2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1단계는 원자료화 과정으로서 녹취된 모든 면접을 기술하였다. 자료의 텍스트량은 한 연구참여자당 A4용지로 15쪽에서 32쪽의 범위에 걸쳐 있다. 2단계는 코딩작업으로서, 수집된 원자료의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건, 행동, 감정,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분해하고 조직화하였다. 본 연구의 초기 개념화 단계와 후속 정련작업 단계에서는 질적 경험이 있는 가족학·아동학 박사학위 소지자인 연구자 3인이 연구텍스트인 전사자료를 반복해서 읽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상호비교, 검토해 나가면서 최종적인 개념들과 범주들을 설정하는 자료의 타당화과정을 거쳤다.

III. 결과 및 해석

1. 농촌 거주 결혼이민여성의 발달

결혼이민여성의 발달적 위치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인 결혼이민여성들은 개인발달단계상으로는 절반이 청년후기나 성인초기에 속하며, 가족발달단계상으로는 신혼부부가족(부부확립기, 무자녀가족)이나 형성기, 확대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의 발달적 과제

개인발달과업(individual developmental task)은 신체적 성숙과 개인적 노력 및 사회적 기대를 기초로 삶의 어떤 시점에서 개인이 획득해야만 하는 지식과 태도, 기능 및 기술을 의

미한다. 발달적 관점에서 청년후기에는 개인적 정체감 확립과 친근감 확립, 성인전기에는 부부체계 확립, 부모자녀체계 확립, 확대가족체계에서의 적응 등의 발달과제가 강조된다 (Havigurst, 1972; 장휘숙, 2007: 241에서 재인용).

상당수가 청년후기나 성인초기에 속하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결혼이민여성들은 개인적 발달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발달과업의 수행이 기대되므로, 혼인으로 인한 이주과정에서의 스트레스는 이와 같은 개인적 발달과업의 수행에 어려움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족발달과업(family developmental task)은 가족생활주기의 각 단계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역할이나 책임으로서, 그것의 성공적 성취는 현재의 만족과 승인을 가져오고 이후 단계에서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지만, 실패는 가족내의 불행과 사회의 불승인을 초래하고 이후 단계의 발달과업 성취를 어렵게 한다 (Duvall & Miller, 1985).

결혼지속기간이 평균 5.9년으로서 대부분이 부부확립기 혹은 형성기나 확대기의 초기에 속하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결혼이민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가족발달과업을 갖는다. 먼저 신혼기(무자녀가족기)에는 상호적으로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확립하기, 임신과 부모역할에 적응하기, 가족관계망에 조화시키기, 첫 자녀 출산기에는 아기 출산과 신생아와의 생활에 적응하며 영아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부모와 영아에게 모두 만족스러운 가정 확립하기, 첫 자녀의 유아기에는 성장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유아기 자녀의 욕구와 관심에 적응하기, 부모역할로 인한 에너지 소진과 사생활

부족에 대처하기, 그리고 첫 자녀 학동기에는 가정관리의 책임 할당하기, 지역사회에 조화시키기, 자녀를 효율적으로 양육하기,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장려하기 등을 수행해야 한다 (박경란 외, 2001: 51).

결혼이민여성들은 위에서 언급한 개인발달과업과 더불어, 이와 같은 가족발달과업의 수행이 요구된다. 그들은 자신이 출생한 문화권 내에서 이러한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위해 이주한 타문화권으로 진입하여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그들의 개인가족발달상의 문제가 더욱 중첩적·누적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따른 발달적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높을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의 발달적 위기와 문제

개인발달과업의 미해결. 본 연구에서 청년후기에 속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은 개인발달과업으로서의 정체감을 확립해야할 시기에 결혼을 하고 이주하게 됨으로써 정체감 형성과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정체감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청소년기에 속할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거나 자신이 성장해 온 본국에서와는 달리 소수자로서 평가되거나 차별 받는 대우를 받아본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민여성 중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를 겪고 복합적인 지위와 역할 부여를 통해 다중적인 정체감을 형성해야 할 경우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 크게 부각되었다.

제가 나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결혼 정

말 무언지 모르고 왔고, 여기 와서 한참 나는 누굴까, 하고 생각했어요 나,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충남 거주 베트남 여성, 19세).

내가 필리핀에 있었을 때는 대학도 다녔고 꿈 많았어요, 근데 여기 한국 오니까, 나 아무 것도 아니다, 생각돼요... 남편 계속 빗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못 살고, 또 한국 사람들, 저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이상하게 보고 막 차별 하고...(충남 거주 필리핀 여성, 31세).

만난 지 금방 결혼하고 한국 와서 부인되었는데 집에서는 며느리 역할 크고 또 조금 있다 엄마 되었어요. 제가 나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에 시집와서 갑자기 많은 역할 해야 했고 좀 정신없었어요(충남 거주 일본여성, 36세).

청년후기의 결혼이민여성들은 본국에서 이성교제 경험이 대체로 적거나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준비교육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선 남자 친구 없었어요, 시골에 살아서 그냥 그런 거 몰라요(경남 거주 베트남 여성, 21세).

일본에서 시집올 때 결혼 준비, 글씨 잘 못했어요. 그냥 우린 통일교회 문선명 선생님 나라에 시집온다고만 생각했어요(충남 거주 일본 여성, 36세).

성인초기의 개인발달과업으로 일차적으로 꼽히는 친근감의 형성에 있어서 결혼이민여성들은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한다. 친근감의 확립은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과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자신이 살던 배경에서 떠나 익숙하지 못한 환경에서 새로운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므로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결혼 초기에는 고립되거나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스스로 주변인 의식을 느낄 수도 있다.

처음에 여기 와서는 친구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여기 문화센터 오면서 조금 나아졌어요. 한 달 전부터 왔는데... 말 못하니까, 그리고 한국 잘 모르니까 무섭고...(경남 거주 베트남 여성, 21세).

예전에 문 닫고 들어가면 하루 종일 혼자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남편 일 나가고 아기 학교 가고나면 어떤 땐 정말 나 혼자다, 생각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끼어주지도 않고(충남 거주 일본여성, 36세).

발달과제 수행을 위한 가족체계 확립의 취약. 주로 신혼기나 가족형성기에 속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가족 발달과업으로는 부부체계의 확립, 확대가족과의 관계 정립, 자녀를 부부체계 안에 수용하고 양육하는 것 등이다. 이 시기의 주요한 생활사건인 결혼과 임신, 출산 등은 자신이 속한 문화권을 떠나지 않은 여성들도 이 사건들

을 겪게 되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규범적 전환(normative transition)의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자신이 속해온 것과 다른 환경에서 이 생활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결혼 이민여성들의 어려움은 훨씬 더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들은 이 생활사건들을 경험하기 전에 별다른 교육이나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시일 내에 진입했으며, 결혼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교제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서 결혼 결정이 이루어졌다.

결혼하기 전에는 만난 적 없어요. 축복식이 서울에서 있었는데, 40일 전에 사진 받았어요. 남편도 그 때 내 사진 받고...(강원 거주 일본여성, 43세).

결혼하고 일주일 정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속을 빨리 해야 해서, 결혼증도 빨리 내야 하고, 그래서 애기 아빠는 오고저는 있었어요. 만난 지 열흘 있다가 남편은 오고, 그리고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어요(경남 거주 중국(조선족)여성, 36세).

거의 반은 거짓이었던 것 같아요. 생활수준이 많이 틀렸어요.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줬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구요(충남 거주 중국(조선족)여성, 31세).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영어 못하는데 그 땐 좀 한다 했어요. 또 말 안해준 것도 있었어요. 남편이 나이는 것 같은데 막내라고 했었는데, 한국 와

보니까 장남이었어요(강원 거주 필리핀여성, 42세).

발달과업으로서의 결혼에 대한 동기나 인식의 차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결혼이민여성들과 그들의 배우자들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성인기 주요 발달과업인 결혼에 진입한다.

국내 사회에서 적절한 배우자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결혼을 시도하는 남편들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갈망이나 경제적 동기, 혹은 종교적인 이유 등이 원인이 되어 결혼이민을 시도하는 외국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결혼에 대한 동기나 인식의 차이는 결혼생활에 반영되어 정상적인 가족발달과업의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여성의 결혼생활은 결혼에 대한 기대나 이유가 다르고, 결혼의 동기나 과정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으로 진행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가족체계 불안과 가족발달적 위기의 심각성은 이미 예고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랑이 돈 번다고 했지 농사짓는다고는 말 안했어요. 나는 대학교 나와서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농사한다고 말 안 해서 마음 아프고 화났어요. 와서 농사일 알았어요. 이게 뭐야, 집이 이게 뭐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일이 힘들어서 필리핀 간다고 전화해서 울기도 했어요(경남 거주 필리핀여성, 39세).

우리 교회에서 남편이 착실한 신자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교회 나가는 사람 아니었어요. 저랑 결혼하려고만 교회 나갔던 것이예요(충남 거주 일본여성, 36세).

교회 있으면서 자기 맘에 들어서 결혼하는 거 한 사람도 없어요. 한국 사람과 결혼하게 된 건 문선명 선생님이 결정하셨으니까... 거의 뭐 다 결정하시는 대로 제가 맡기는 거죠(강원 거주 일본 여성, 43세).

문화부적응으로 인한 발달과업 수행의 미흡.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이 겪는 문화부적응 중 가장 어려운 것은 언어불통과 출신 본국과 한국과의 문화 차이로 인한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의 문제이다. 결혼 이후의 성인기 발달과업에는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과의 관계, 확대가족과의 관계, 이웃·지역사회와의 관계 확립이나 교류도 포함이 되는데, 한국어 소통이 자유롭지 못하고 한국 사회의 예절이나 생활문화에 익숙치 못한 결혼이민여성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발달과업의 수행에 취약하다.

전반적으로 부인의 한국어 실력은 보통 정도이나 남편의 배우자 국가 언어 실력은 매우 서투른 편으로 결국 부인의 한국어 실력에 따라 의사소통 수준이 달라진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것은 남편이나 시댁 가족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남편의 경우에도 친정가족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 한편 한국어 실력의 부족은 자녀와의 대화나 관계 형성, 그리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사와의 소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작문, 문장 어려워요. 발음이랑 문법 어려워요. 힘들어...(강원 거주 베트남 여성 29세).

말도 높임말을 써야 하는데, 그런 거 안 배웠으니까. 어머니도 남편도 다 저한테는 반말을 하니까. 시어머니한테는 그런 말 쓰는 거 아니라고 혼났어요(강원 거주 일본 여성, 43세).

(남편은 베트남어를 잘 하는지에 대한 응답) 하나도 몰라요. 엄마, 아빠 베트남 전화 와서 남편이 대화하고 싶어도 베트남 말 하나도 몰라 대화 못해요(강원 거주 베트남 여성, 29세).

한국 사회의 가부장권 문화나 남성우월주의 의식은 부부간 평등성 확보나 시대과의 관계 수립에서의 어려움을 야기 한다.

예전 홍콩에서 일하던 주인이 나한테 한국에서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남편만 위하는 나라고 밥도 남자가 먼저 먹고 여자는 나중에 먹는다고 그랬어요(강원 거주 필리핀 여성, 42세).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너무 하고 싶고, 가족을 위한 것도 되는 일이라면 좀 몇 번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 포기하고(경남 거주 일본여성, 40세).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달라요. 한국에서

는 제가 생각하기에 하녀 같아요. 일본에서도 백프로 그런진 않은데 사이가 좋아요... 차이 많아요(강원 거주 일본 여성, 43세).

시어머니랑 사는 게 힘들어요... 또 시누이가 있는데, 시누이 때문에도 힘들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나랑 같이 살면서 고생 많이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강원 거주 필리핀 여성, 42세).

한국의 문화관습에의 적응은 결혼이민여성들이 결혼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것으로 인식되는데, 결혼이민여성의 결혼생활 중 가장 힘든 점은 한국문화 및 예절, 친족관계, 한국생활 등이 빈번하게 거론된다. 또한 문화에 따른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의 차이는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해 남편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은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갈등의 이유를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한편, 언어적 소통의 미숙이나 문화관습의 부적응으로 인해 지역사회 행사 참여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은 지역사회 행사 참여에 있어서는 ‘전혀 없다’라고 반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연령규범의 이탈과 배우자 간 세대차¹⁾.

1) 본 연구에서의 ‘연령규범의 이탈’ 논의는 주로 한국사회의 연령규범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서 송출국의 연령규범에 대한 자료에 근거한 비교문화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적 시계에 따라 이정표적인 사건을 겪도록 기대될 뿐만 아니라, 나이에 걸 맞는 적절한 행동이나 역할까지도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호기심과 관심어린 눈으로 보거나 혹은 그런 행동을 비난하고 제약을 가한다(김애순, 2002: 25). 이처럼 나이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규범을 연령규범(age norm)이라고 하는데(Hagestad & Neugarten, 1985), 일반적으로 결혼이나 자녀양육 등과 같은 중요한 인생사건들은 그 사회내의 합의된 연령규범에 따라 수행된다. 따라서 개인의 발달은 특정한 인생사건들이 이 연령규범에 맞추어 전개되는지 아니면 이 연령보다 늦게 혹은 일찍 전개되는지에 따라 평가된다(장휘숙, 2007: 16).

최근의 경향은 사회적 시계를 무시하고 개인 자신의 독특한 사회적 시계에 맞추어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결혼이민여성들의 배우자인 농촌총각들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해서 사회적 시계에 따른 결혼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최근 결혼으로 인한 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의 경우에도 송출국의 사정에 따라²⁾ 한국의 사회적 시계에 앞서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한국사회의 연령규범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국제결혼을 하는 농촌남성들의 연령은 너무 늦고, 특히 최근 결혼중개업을 통해 한국 농촌으로 유입되는 베트남여성들의 연령은 빠른 편이다. 따라서 이들의 연령 규범 이탈과

2) 이러한 결혼이민여성의 송출국 사정은 설동훈 외(2005), 설동훈(2006), 이순형(2007)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람.

부부로 결합될 때의 현격한 연령 차이³⁾는 발달적 관점에서 주목을 받을 만하다.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저희 군에서는 70대 노인이 20대 초반의 베트남여성
과 결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이 경
우에는 초혼이 아니라 재혼 경우였는데...
글쎄 이 노인이 그 베트남 여성을 밖으로
내보내질 않는 거예요. 거의 감옥살이를
시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그 베트남여
자를 너무 안 되었다 생각해 어떻게 해보
려 했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었어요(충남
결혼이민자지원센터 관련인사).

지나치게 큰 연령 차이는 부부관계 안에서
세대 차이를 경험하게 하며 부부로서의 관계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즉 연령대가 다르므로 생활양식이나 사
고방식, 관심사의 차이로 인한 부조화의 가능
성도 예견될 수 있다.

저는 베트남에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한
국 드라마 보고 한국 남자 멋있고 여자들
한테도 잘해준다 생각했는데... 우리 남편
46세예요. 생각이 남자가 최고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고...(충남 거주 베트

남 여성, 19세).

베트남 신부들은 어리니까 청바지 입고
싶고 또 자꾸만 어디 놀러가고 싶은데, 신
랑들은 나이 많으니까 옷도 좀 점잖게 입
으라고 하고 또 일 많이 하고 피곤하고 체
력도 달리니까 놀러가기는 무슨 놀러 가냐
고 그냥 집에서 쉬자 하고... 그래서 제가
교육시킬 때 신랑들한테 늙은 티 내지 말
고 가능하면 신부들한테 맞춰주라 하는데
거 잘 안돼요... 그런 점에서 솔직히 어렵
고 서로 잘 안 맞지요(결혼중개업체 사장).

2. 농촌거주 결혼이민여성의 적응

결혼이민여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혼생활적응 관련요인. 행복한 결혼생활
과 관련되는 요인들을 밝히려는 선행연구들
(Gottman et al., 1998; Karney & Bradbury, 1997)
의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의 가족배경이 서로
비슷하고 20세 이후에 결혼하며 구혼기간이 6
개월 이상일 때 그리고 결혼 1년 후에 첫 임
신을 했을 때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
또한 확대가족과 따뜻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부모나 친인척과의 결혼생활
이 안정적인 때,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그리고 부부의 성격 특성이 긍정적이고
갈등해결을 지니고 있을 때 행복한 결혼생활
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은 다양한 양상
을 보이므로 일률적으로 언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면접과정에서 결혼생활의 부적응을

3) 결혼이민여성과 남편들의 결혼 당시 연령 분석
을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다. 설동훈 외(2005),
설동훈(2006)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결혼 부부의
평균 연령 차이는 7세 정도이며, 부부간 연령
차이가 남편이 10살 이상인 경우가 34%를 차지
하는데, 이러한 극심한 연령 차이는 특히 베트
남여성(72%), 몽골여성(60%), 구소련여성(57%)과
의 결혼에서 나타났다.

언급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결혼생활적응 관련요인들이 적절하게 기능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즉, 결혼이민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배우자 간 소속한 문화가 다르고 가족의 문화적 배경도 차이가 있다. 또한 20세 이후에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10대 후반의 여성들도 있었고, 연구자가 성혼과정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구혼기간은 3일 이내인 경우도 많았다. 이들은 임신과 출산도 별다른 교육과 준비 없이 맞고 첫 임신도 결혼 1년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확대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문화권의 차이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 등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성격 특성을 볼 때는 대체로 긍정적인 문제해결을 지향하거나 자존감 수준이 아주 낮지 않았고,⁴⁾ 심리적 증상도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간혹 결혼 초기에 불안이나 우울증세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이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마음이 안정되지 않거나 기분이 울적해지는 등의 심리증상을 살펴보면, 대체로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들의 심리적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들의 상태는 출신국 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일본 여성의 경우가 가장 낮고 베트남 여성, 중국 여성의 경우가 높았다. 이는 일본 여성이 다른 출신국 여성보다 심리적으로 조금 더 건강한 상

태에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서는 비교적 장기간의 거주, 종교적 동기의 작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가슴이 답답하고 그럴 때 가끔 있어요. 근데 약 먹으면 괜찮고 그래요. 그리고 한참 앉아 있다 갑자기 일어나면 한참 서 있어야 해요.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는 사람 많고 그런 데 가면 불안하고 가슴도 떨렸어요(강원 거주 베트남여성, 29세).

결혼생활 적응기제로서의 사회적 지지 혹은 사회적 호위대의 지원.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한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자원으로서 작용한다. Antonucci(1990)에 의해 제안된 개념인 사회적 호위대(social convoy)는 성인기 동안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연결망으로서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호위대의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개인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있어서 주요한 사회적 호위대는 남편, 본국 친구, 시부모, 행정기관이나 민간지원단체, 이웃, 결연양모 등이다.

결혼이민여성들은 심리적 위로와 생활정보 제공을 주로 남편과 친구에게서 가장 많이 받으며, 방문은 주로 친구와 이루어진다. 대상에 따라서 지원받는 내용을 살펴보면, 남편에게서는 심리적 위로와 생활정보 제공을 많이 받는데,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큰 편이다. 시부모는 주로 방문 및 연락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친구는

4)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의 자존감은 낮지 않은 편에 속하였으며,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가별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양순미·정현숙(2006)의 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자존감은 결혼생활적응과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방문 및 연락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심리적 위로를 많이 받는 대상이기도 하다. 행정기관이나 민간지원단체 등에서는 주로 생활정보를 제공 받는다.

본국 친구는 결혼이민여성들이 남편 다음으로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으로서,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에 있는 본국 친구와 빈번하게 접촉을 유지하는 편이다.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에 있는 본국 친구와 1주일이나 1개월에 1번 이상 만남으로써 상당히 잦은 빈도로 본국 친구와의 접촉을 유지한다. 이들이 만나는 장소는 주로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등의 한글교실, 집, 교회 등이다. 본국 친구들과는 한국생활의 적응문제, 자신의 부부관계,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에 관해 주로 대화를 나눈다. 결혼이민여성들은 이러한 본국친구들과의 만남이 자신의 한국생활 적응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각한다.

중국에서 온 친구들 2명 정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속 터진다고 얘기하고(중략). 속상하다는 얘기하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는 왜 사냐 이러다가 그래도 못한 사람보다 낫지 않냐고 그래요. 그럼 이튿날 밝은 얼굴로 일어나지요(강원 거주 중국여성, 27세).

이웃은 결혼이민여성들이 도움을 주고받는 주요한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자 사회적 호위대의 구성원이다. 결혼이민여성들은 낯선 곳에서 자신의 결혼생활을 영위해야하는데 기본적인 생활정보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므로 지리적 근접성에 근거한 이웃과의 접촉과 지원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형편이다.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인 이웃들과 일상적 대화, 경조사 돕기, 농사일 돕기, 어려운 일 의논 등의 지원을 주고받는다. 이웃과의 왕래가 적지 않은 편이며, 이웃으로부터 소외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낮은 편이다.

2층 아주머니가 다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에 마트도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요... 또 애기 이프고 그러면 병원도 어디 있는지 모르니 그런 것도 2층 아주머니가 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뭐 필요한데 애들 때문에 못 나가고 그러면 아주머니가 회사 갔다 올 때 사다줘요(충남 거주 베트남여성, 19세).

지역사회의 여성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연양모(자매)등도 또한 결혼이민여성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결혼이민여성들은 대체로 이러한 양모(자매)결연이 도움이 된다고 인정은 하였으나, 결연의 지속성이나 결연 양모(자매)에 대해서 연령차 등으로 인한 한계를 느끼기도 하였다.

행사 때, 그 때 만나서 끝났어요. 그 뒤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을 만나니까 신경 쓰여서 가볍게 만날 수 없었어요. 저랑 비슷한 세대면 좋겠어요(강원 거주 일본여성, 43세).

결혼이민여성의 적응 단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결혼이민여성의 결혼생활에서의 적응은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문화적응(Acculturation)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문화적응은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들의 집단이 처음으로 지속적인 접촉에 들어갈 때, 그 결과로 한 집단 혹은 양 집단의 고유한 문화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정의된다(Redfield et al., 1936; 이인선, 2004: 12에서 재인용).

문화적응과정은 이주자 개인의 특성과 이주자의 본국과 이주국가의 사회경제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또한 이주자와 이주국가 사회의 상호작용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역동적으로 일어난다. 이주자는 자신의 고유한 문화에 따른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사회의 특성을 배워나가게 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문화적응과정 중의 변화는 접촉하는 두 집단 모두에게서 일어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지배를 받게 되며 더 많은 문화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다(Berry, 1980).

문화적응은 이주 적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데(이인선, 2004),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에서의 적응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결혼이민은 당사자인 여성이 결혼을 통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겪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실제로 이질문화에 적응하는 사람들은 언어적 장벽, 가족지원체계로부터의 단절, 문화충격, 사회적응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대부분 일정기간 심리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승중, 1995; 이인선, 2004; Sandhu & Asrabadi,

1994; Sluzki, 1979).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 즉 스트레스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스트레스원의 결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미하기도 한다(이인선, 2004). 스트레스원으로서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이주국가와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말하는 것으로, 차별, 언어문제, 사회적·재정적 자원의 부족, 문화적 비양립성, 가족이나 문화적 자부심과 같은 보호가치들로부터의 분리,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에게 계속 적응해야만 하는 부담감 등이 이에 속한다(Diaz, 1999). 스트레스원의 결과로서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낮은 정신건강(특히 우울, 불안), 소외감과 주변화의 느낌, 정체성의 혼란과 같은 스트레스 행동을 유발한다.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개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건강 상태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Berry, 1998).

Berry와 Kim(1988)은 이러한 시간경과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문화이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접촉(이민) 이전의 시기, 접촉기, 갈등기, 위기기, 적응기 등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들도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문화이입단계를 통해 결혼생활에 적응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⁵⁾

5)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은 결혼 후 적응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기간이 6개월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1년, 2년의 순이었다. 결혼이민여성의 대다수가 결혼 후 1년까지의 기간이 적응과정 중 힘들었다고 응답한 결과를 통하여 이 시기에 특히 이들을 위한 집중적인 적응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이순형 외, 2006).

접촉 이전의 시기(precontact phase). 개인적·사회적인 요인 등으로 이민을 결심하는 시기이다. 예컨대, 사업의 실패와 좌절, 신경증적인 욕구,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갈망 등은 개인적인 동기에 속하고, 전쟁의 위협, 가난, 인구과밀 등은 사회적인 동기에 해당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들에서는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나 종교적 이유 등으로 한국으로의 결혼 이민을 선택한 경향이 있다.

결혼해서 한국 올 때 친정을 도와줄 수 있는 점을 가장 많이 생각했어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친정에 돈을 보내주고 있어요(강원 거주 필리핀여성, 42세).

저는 저 생각대로 아니고 교회에서 결혼하라고 해서 했고 문선명 선생 나라에 가서 사는 거 좋다고 생각했어요(충남 거주 일본여성, 36세).

접촉기(contact phase). 이민 초기에 해당하는데, 새로운 문화와 접촉해서 행동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스트레스에 직면한다. 이민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정신건강의 정도가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들 중 결혼 초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단계에 속한다.

그러나 반면 본 연구에서 면접한 한 결혼중개회사 사장은 결혼이민여성들의 결혼생활 안정과 정착을 위해 2년 정도는 가정 외부의 교육 등을 자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

저는 어리고 한국 잘 모르니까 어려워요, 온지 1년 좀 되었는데 여기 시집와 살아야 하니 참아야 해요(충남 거주 베트남 여성, 19세).

갈등기(conflict phase). 이민자들이 생활해 가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문화적 압력이 개인이나 이민 집단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시기로서 정신건강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불확실성과 혼란을 야기하기 쉽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들 중에서도 결혼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결혼하고 6개월까지가 제일 힘들었어요. 남편은 일하러 가서 안 오고, 시아버지하고 있는데 말이 전혀 안 통해서 많이 싸우게 되고...(경남 거주 베트남 여성, 21세).

시댁 식구들 하고 힘들고 남편하고도 그렇고 한국 사는 거 어려워서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적 있어요. 그러면 약 먹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느니 베트남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식구들 다 저 잘 사는 줄 아니 어떻게 못 해요...(강원 거주 베트남여성, 29세).

위기기(crisis phase). 갈등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긴장과 갈등이 계속되어 정신건강상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시기이다. 후회, 좌절과 자살, 공격적인 행동, 가정불화, 술과 약물의 탐닉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민생활의 성패는 이 시기에 판가름이 난다. 본 연구에

서는 소수이지만 이러한 위기의 양상을 보이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있었다.

그 베트남 신부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우리 회사에 전화 걸고 그랬지요. 우리는 좀 참으라 했고. 그 신랑도 불러 혼도 내고 타이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신부가 매일 자기는 시집 잘 못 왔다, 나 베트남 보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은 달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가 길거리 나가서 그냥 우두커니 서 있기도 하고 해매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그만 목매 자살해버렸어요...(결혼중개회사 사장).

적응기(adaptation phase). 갈등기와 위기기를 넘어 어떤 형태로든지 그 문화에 적응하는 시기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지속년수가 오래 되고 주로 일본 출신의 결혼이민여성들이 이러한 적응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제는 10년 살았고 어찌되었든 적응하고 살아요. 일본 그리우면 가끔씩 딸애 데리고 다녀 오기도 하지만 한국사는 거 이젠 많이 좋아졌어요. 아들 학교에 나가 선생님들, 다른 엄마들하고도 친하고 또 교회 사람들과도 만나고...(경남 거주 일본 여성, 40세).

IV. 결론 및 논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의 결

혼생활을 발달적 관점에서 짚어보고 적응을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과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거주 결혼이민여성들의 발달적 위치는 개인발달적 차원에서는 청년후기나 성인전기, 가족발달적 차원에서는 주로 가족형성기나 가족확대기에 처해 있다.

개인의 연령에 대한 발달단계 구분은 절대적인 지표가 없으며, 동일한 연령의 개인들 사이에도 많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령은 단지 대략적인 지표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발달심리학자들은 연령에 따라 나름대로 개인의 발달단계를 구분하려는 노력을 시도해왔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발달단계의 분류가 존재한다. 이러한 발달이론에 따르면,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이 처해 있는 이 시기는 개인발달적 차원에서나 가족발달적 차원에서나 변화가 상당히 크고 발달과제의 실행 부담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 동안 거주 국가의 이동을 경험하고 새로운 결혼생활이나 가족체계 내에 진입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증첩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예상된다.

둘째, 결혼이민여성들은 개인적 정체감 확립과 친근감 확립이라는 청년 후기의 발달과제와, 부부체계 확립, 부모자녀체계 확립, 확대가족체계로의 적응 등의 성인 전기의 발달과제를 안고 있다.

Havighurst에 따르면, 청년후기는 개인적 정체감을 확립하고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는 시기로서, 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의 발달과업에는 정체감 형성, 동성이나 이성의 친구와 새로운 관계 확립, 결혼과 가정생활 준비 등이 포함

된다. 이 시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발달과업은 정체감 형성이다. 정체감(identity)이란 자기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비교적 안정된 느낌으로 행동이나 사고 혹은 느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친숙한 것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장휘숙, 2007: 242, 282).

성인초기에는 자율감 성취, 정서적 안정 확립, 친밀감 형성, 배우자 선택과 가정관리, 남편이나 아내의 역할 학습, 아동 양육 등이 발달과업에 속한다(Havigurst, 1972; 장휘숙, 2007: 319에서 재인용). 발달과업을 지적·정의적·사회적·신체적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한 김종서 외(1982: 김애순, 2002: 43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 성인초기의 발달과업은 정의적 영역에서는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 유지, 성공적 자녀교육, 직장에서의 원만한 관계이고, 사회적 영역에서는 성공적 부모 역할, 만족스런 직무 수행, 풍부한 사회생활 영위하기이다.

결혼이민여성들은 개인적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거주지 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경험하였거나, 급작스럽게 결혼생활에 진입하고 새로운 문화권 안에서 적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년 후기나 성인 전기의 발달과제에 대한 인식과 성찰이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결혼이민여성들은 개인발달과업의 미해결, 발달과제 수행을 위한 가족체계 확립의 취약, 발달과업으로서의 결혼에 대한 동기나 인식의 차이, 문화부적응으로 인한 발달과업 수행의 미흡, 연령규범의 이탈과 배우자 세대차 등의 발달적 위기와 문제를 경험한다.

Holmes와 Rahe(1967)는 긍정적 변화이든 부

정적 변화이든 변화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적응을 요구하며, 변화가 크면 클수록 스트레스는 더 커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들이 지적인 중요한 스트레스원인 결혼, 임신, 출산의 비교적 짧은 시기에 겪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함께 경험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은 상당한 발달적 위기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개인발달과업이나 가족발달과업은 한 시기에 요구되는 과업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그 영향이 이후의 다음 단계 시기에 중첩적·누적적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결혼이민여성들의 결혼생활은 그 여파가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속한 가정의 문제를 지역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 개입하고 지원해 줄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보인다.

넷째, 결혼이민여성들의 결혼생활 적응에는 다양한 관련요인이 작용하며, 이들의 결혼생활 적응에는 사회적 지지 혹은 사회적 호위대의 지원이 적응기제로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일차적인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자 사회적 호위대의 지도에서 내부원에 속하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가족 외의 친구들도 정서적·사회적 지지의 원천으로서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안녕감을 고양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김애순, 2002: 336). 친구는 중요한 사회적 호위대를 구성하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서의 친구 범주는 가족 이외의 사람으로서 동년배의 친구도 포함되지만, 선배·후배, 직장 동료, 이웃, 가입단체의 동료, 지역사회 단체 관련인사 등 다양한 인적 구성원이 그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나 사회적 호위대의 성원들에게서는 심리적 위로, 생활정보 제공, 방문 및 연락 등의 지원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이 심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도움을 얻는 상대로는 주로 남편이 언급되었고, 한국에 사는 본국 친구가 그 다음이었으며, 본국의 친정 부모 및 가족도 거론되었다. 역시 가족원들이 주요한 도움을 제공받는 상대로서 인식되고 있으나,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결혼이민여성들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에는 도움을 얻을 대상이 상당히 축소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순형(2007)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볼 때, 결혼이민여성들의 적응기제로 작용하는 다양한 사회적 호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결혼이민여성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자신의 여건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정체감을 형성하고, 일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해가는 적응단계를 거친다.

문화적응과정의 속성에 따라 결혼이민여성의 국내 적응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주목되는 것은 출신국과 거주지역에 따라 결혼이민여성의 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설동훈(2006)은 한국에서 현재 사회적 적응이 가장 우수한 집단은 몽골 이민자 중 도시거주자이고, 다음이 러시아 이민자 중 도시거주자, 그리고 중국 이민자의 순이라고 밝혔다. 반면, 태국인 이민자, 베트남 이민자, 일본인 이민자 중 농촌거주자 등이 사회적 적응

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경제적 적응이 우수한 집단은 베트남 이민자 중 농촌거주자와 중국동포 이민자 중 도시거주자로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이민자 중 도시거주자, 중국 동포 이민자 중 농촌거주자, 몽골인 이민자 중 도시거주자 등으로 나타난다. 출신국별로 적응 상황을 보면, 일본인 이민자들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사회적·경제적 부적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낙후한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적 지위의 하강이동을 동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베트남인 농촌거주자는 경제적 적응이 가장 우수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적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고 가구소득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그들의 한국어 실력은 가장 낮고 사회적 적응 점수도 현저히 떨어진다. 중국동포와 중국한족 이민자들은 사회적·경제적 적응이 비교적 양호하다. 그들은 한국어에 이미 능숙해 있거나 습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경제적으로도 취업과 소득 수준이 양호하여 매우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필리핀 이민자들은 사회적 적응의 면에서는 베트남인들과 태국인들보다 잘 적응하는 편이지만, 경제적 적응의 면에서는 필리핀 이민자중 농촌거주자의 적응 수준이 일본인 이민자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들의 출신국에 따른 분석에서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설계와 분석상의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을 발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는 데 초점을 두고 적응양상과 과정을 발달적 시각에서 해석해내는데 집중함으로써, 개인·가족발달단계가 구체적으로 혼인이주라는 경험과 맞물려 어떻게 재해석되는지를 보여주고, 문화적응과정과 개인의 생애과정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접근하는 데에서는 다소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후속연구에서 청년후기에 한국에 온 결혼이주여성과 성인전기 또는 성인후기에 한국에 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정 및 경험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분석하게 되면 연구결과의 해석과 함의가 보다 풍부해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단계를 전반적으로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어떤 개별 결혼이주여성이 이 적응단계들을 경과하는 과정을 치밀하게 그려내는 작업에 연구의 중점을 두지 못하였다.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이 거쳐 가는 일반적인 적응단계를 특정연구대상 중심으로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론과 논의, 한계를 토대로 학문적·실천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까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 관한 논의는 거시적인 정책 입안의 방향이나 그들에 대한 사회적 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다수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바와 같이 심리사회적 발달 측면이나 심리정서적 적응 측면에서 미시적인 분석 연구들과 보완, 접합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둘째, 후속연구에서는 국제결혼이나 결혼이

민여성에 대한 연구에서의 전체적인 윤곽 파악에서 주제나 영역을 특정화해서 접근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선행연구들이나 본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제결혼을 한 결혼이민여성들은 출신국가별, 자신의 출신계층별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적응 양상을 보이므로, 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과 전략을 제시하는 보다 정교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현재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일부 시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상 파악과 원인 분석과 더불어 결혼이민여성의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입방안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더 활성화되어야 하리라고 보인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개입에 앞서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정책 실현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정책 입안과 발전지향적인 방향 모색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는 발달적 관점에서 결혼이민여성의 결혼생활을 둘러싼 현실을 살펴보고 적응을 탐색한 시험적인 성격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후속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분석의 정교화와 논의의 타당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05). 여성결혼이민자 지원방안.
교육인적자원부 외 (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 김경신 (2006). 결혼이민자가족의 수용과 정착을 위한 학문적·실천적 측면에서의 접근. 결혼이민자가족: 다양성과 공존을 향하여.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애순 (2002).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영란 (2005). 다문화사회를 위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 연구. 이주여성의 삶을 통해서 본 공존과 상생의 문화. 서울여성포럼 자료집.
- 김오남 (2006a).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 김오남 (2006b).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6.
- 김은실 (2002). 지구화, 민족/국적, 그리고 여성의 섹슈얼리티. 여성학논집, 19, 29-46.
- 김정태 (2005). 농촌지역 결혼연령 성비 분석과 국제결혼의 의의. 한국사회의 지구화와 근대성.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자료집.
- 노영주 (1998). 초기 모성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경희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현상. 21세기 정치학회보, 16(3), 67-93.
- 박경란, 이영숙, 전귀연 (2001). 현대가족학. 서울: 학지사.
- 박재규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지역 정착과 지원방안. 한국사회의 지구화와 근대성.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자료집.
- 설동훈 (2006). 한국의 결혼이민자가족: 현황과 정책. 결혼이민자가족: 다양성과 공존을 향하여.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연구용역과제 보고서.
- 성지혜 (1996). 중국교포여성들과 한국남성간의 결혼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 아시아이주여성국제포럼 (2005).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인권. 아시아이주여성국제포럼 자료집.
- 양순미, 정현숙 (2006).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223-252.
- 윤형숙 (2004).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 이금연 (2003). 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족. 국경과 인종, 피부색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평등과 연대를 향해. 이주노동자지원단체연대.
- 이수자 (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38(2), 189-219.
- 이순형 (2007). 결혼이민자의 생활적응문제와 지원방안.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다문화생활교육센터 개원심포지움 자료집.
- 이순형, 문무경, 최연실, 이숙정, 정하나, 우현

- 경 (2006).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방안. 농림부 연구용역과제 보고서.
- 이승중 (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인선 (2004).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장휘숙 (2006). 성인심리학: 성인발달, 노화, 죽음. 서울: 박영사.
- 장휘숙 (2007). 전생애 발달심리학.(제4판). 서울: 박영사.
- 채옥희, 홍달아기, 김정훈, 이남주 (2006). 국제 결혼 가족의 가정생활 적응전략. 결혼이민자가족: 다양성과 공존을 향하여.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최연실, 권용혁, 김태성, 우실하 (2007). 한·중 국제결혼에서의 갈등과 적응: '소외'와 '타자화'의 체험에서 '소통'과 '화합'의 모색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251-299.
- 통계청, 인구동태 혼인·이혼편.
<http://kosis.nso.go.kr>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한국염 (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3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 홍기혜 (2000). 조선족 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ntonucci, T. C. (1990).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coping with negative life events. In E. M. Cummings, A. L. Greene, & E. H. Karraker (Ed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II Stress and coping across the life-span*. Hillsdale, NJ: Erlbaum.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M. Padilla(Ed.), *Acculturation: Theories, models and findings*(pp. 9-25). Boulder, CO: Westview.
- Berry, J. W. (1998).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ry, J. W., & Kim, U. (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In P. Dasen, J. W., Berry & N. Sartorius (Eds.). *Cross-cultural psychology and health: Towards applications*. London: Sage.
- Diaz, J. O. P. (1999). Acculturation and disaster-induced stress in migrant populations: Special needs and recommendations for interventions. *Migration World Magazine*, 27(1/2).
- Duvall, E. M., & Miller, B. C. (1985).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6th ed.). New York: Harper & Row.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ottman, J. M., Coan, J., Carrere, S., & Swanson, C. (1998). Predicting marital happiness and

- stability from newlywed interac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5-22.
 - Hagestad, G. O., Neugarten, B. L. (1985). Age and the life course. In R. H. Binstock & E.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pp. 35-61).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Homles, T. H., & Rahe, R. H.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218.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7). Neuroticism, marital interaction, and the trajectory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075-1092.
 - Sand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im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Sluzki, C. E. (1979). Migration and family conflict. *Family Process*, 18, 379-390.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2nd ed.).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 1 차원고접수 : 2008. 07. 06.
수정원고접수 : 2008. 09. 12.
최종게재결정 : 2008. 09. 16.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daptation of Immigrant Women by Marriage Living in Rural Areas

Choi, Youn-Shil¹⁾

Yi, Soon-Hyung²⁾

Moon, Moo-Kyung³⁾

¹⁾Sangmyung University

²⁾Seoul National University

³⁾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evelopment and adaptation of immigrant women by marriage living in rural areas from a developmental perspective. The subjects were 12 immigrant women living in the Kangwon, Chungnam, Kyungsang areas. In depth personal interviews were conduct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from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immigrant women were found to be in the period of late youth or early adulthood in terms of their individual development, and were also in the period in which the shaping or extension of their family development is occurring. Second, the immigrant women were found to be dealing with certain developmental task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identity, intimacy, their conjugal systems and their parent-child systems, as well as their adjustment to extended family system. Third, these immigrant women experienced developmental crises and problems such as vulnerability of their family system, gaps in causes and awareness of marriage related issues between husbands and wives, a deficiency of performance in developmental tasks due to cultural maladjustment, deviation of age norms, and generation gaps which existed between couples. Fourth, in adaptation to marital life among immigrant women, various related variables were found to be in operation and, social supports and social convoys were found to be in operation as part of an adjustment mechanism. Fifth, the immigrant women experienced the stress of cultural adaptation, and have gone through the various stages of adaptation over time.

Key words : Immigrant women by marriage living rural area, development, adaptation